

헥토이노베이션 (214180)

국내와 해외 동시 출격 대기

서클 Arc의 파트너사 선정: 해외 진출 기대

Arc는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Circle)이 기업/금융기관의 온체인 금융활동을 위해 자체 설계하는 블록체인 메인넷이다. USDC는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사용되고 있다. 서클은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결제/정산 네트워크의 확장 및 강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메인넷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서클은 2025년 10월 Arc Public Testnet 출시를 공개했으며, 발행-개발-결제-은행-보험 등 각 분야 전세계 100여개 기업을 파트너사로 선정했다. 동사는 Fireblocks, Ledger, MetaMask 등과 함께 디지털 월렛 분야 파트너사로 국내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자회사인 헥토파이낸셜은 결제 분야에서 국내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Arc의 디지털 월렛 분야 참여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갑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Arc는 단순 결제 네트워크가 아닌 스테이블코인 결제, 토큰화 자산, FX유동성, 글로벌 금융상품 온체인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Arc 파트너사로서의 경험은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조성하게 만든다. 자회사를 통해 결제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개화를 기다리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국회가 연내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본래 2025년 10월 법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지연된 상태이다. 입법 이후 유예기간(1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주체가 은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송금, 결제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지갑사업을 외주를 통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시스템 안정성, 결제 안전성에 대한 Risk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레퍼런스 보유 여부와 신속한 대응 여부가 금융권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동사가 인수한 월렛원은 국내 VASP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 중 지갑 사업화를 가장 많이 수행한 1위 기업이다. Arc를 통해 해외사업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이다.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서석준 Research Assistant
seokjun.seo@yuantakorea.com

NOT RATED (M)

목표주가 -원 (M)

직전 목표주가 -원

현재주가 (12/05) 16,12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2,116억원
총발행주식수	12,993,367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11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66,345주
52주 고/저	18,310원 / 11,290원
외인지분율	11.70%
배당수익률	3.97%
주요주주	이경민 외 3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0.9	6.1	29.3
상대	(1.6)	(6.9)	(6.2)
절대 (달러환산)	(0.7)	0.1	24.1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2,210	2,630	2,885	3,195
영업이익	375	356	380	489
지배순이익	211	295	228	279
PER	11.6	7.0	7.8	6.3
PBR	1.9	1.4	0.9	0.8
EV/EBITDA	2.7	2.6	0.8	-0.8
ROE	15.9	21.3	14.5	14.6

자료: 유안타증권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및 중요 공시는 Appendix 참조

서클 Arc 의 파트너사 선정: 해외 진출 기대

Arc는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Circle)이 기업/금융기관의 온체인 금융활동을 위해 자체 설계하는 블록체인 메인넷이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글로벌 FX 및 유동성 관리, 토큰화 자산(RWA) 발행 및 유통, 각종 금융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하나의 인프라 위에서 처리하도록 설계된 네트워크이다. USDC는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사용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으로 서클은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결제/정산 네트워크의 확장 및 강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메인넷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서클은 2025년 10월 Arc Public Testnet 출시를 공개했으며, 발행-개발-결제-은행-보험 등 각 분야 전세계 100여개 기업을 파트너사로 선정했다. 동사는 Fireblocks, Ledger, MetaMask 등과 함께 디지털 월렛 분야 파트너사로 국내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자회사인 헥토파이낸셜은 결제 분야에서 국내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동사의 Arc 디지털 월렛 분야 참여는 보유하고 있는 지갑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Arc는 단순 결제 네트워크가 아닌 스테이블코인 결제, 토큰화 자산, FX유동성, 글로벌 금융상품 온체인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Arc 파트너사로의 경험은 해외로의 진출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조성하게 만든다. 자회사를 통해 결제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동사가 인수한 월렛원(구 헥슬란트)은 국내 VASP 라이선스 보유기업 중 지갑사업화를 가장 많이 수행한 기업이다. 주요 고객사로는 신한은행, 스타벅스, 현대카드 등이 있다.

월렛원은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옥텟(Octet)이다. 금융사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지갑 인프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급한다.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갑 개발-보안-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한다. 관련 글로벌 Top Tier 기업은 Fireblocks와 Bitgo 등이 있다.

둘째, 오하이월렛이다.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사용자용 지갑이다. 고객사의 서비스에 인앱(In-app), 앱투앱(App to App) 방식으로 연동되어 디지털 자산 입출금 기능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인앱 지갑 서비스이다. 월렛원이 운영 주체로서 라이선스, 서비스 공급, 규제 대응, 입출금 관리를 책임져, 고객사는 기술적 & 물리적 투자없이도 디지털 자산 지갑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다.

[표 1] Arc 파트너사

구분	기업
디지털 월렛	Bron, Exodus, Fireblocks, Ledger, MetaMast, Privy, Rainbow, Turkey, Vultisig, 헥토이노베이션
결제, 핀테크	Amazon Web Services, Brex, Careem, Catena Labs, Cloudfare, Corpay, dLocal, Dmall, Ebanx, FIS, LianLian, Mastercard, Mercoin, Noah, Nuver, Pairpoint by Vodafone, PhotoPay, Ramp, Sasai Fintech, Sumitomo, Visa, Yellow Card, 헥토파이낸셜

자료: 언론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메인넷(Mainnet)은 블록체인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본체 네트워크이다. 거래가 실제로 기록되고, 토큰/계약/자산이 생성되고 이동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메인넷은 2가지 유형이 있다.

① 자체 메인넷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이다. 직접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 및 노드 운영 구조를 구축하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소각, 담보 관리가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뤄진다. 외부 체인의 장애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확장성과 수수료의 자체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② 메인넷이 없는 스테이블코인이다. 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는 구조이다. 이 경우 스테이블 코인은 토큰이다. 발행이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네트워크 보안 및 성능을 외부 블록체인에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메인넷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보안. 메인넷의 해킹은 스테이블코인 거래 및 잔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다. ②속도/수수료. 트랜잭션 처리능력이 낮으면 즉각적인 결제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③탈중앙화. 특정기관 통제 여부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④확장성. 수요가 증가해도 체인에 이상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선택하는 메인넷은 3가지 구조가 있다. ①중앙화 발행과 외부 메인넷의 동시 사용이다. 운영사는 중앙에서 발행 및 소각을 하며, 블록체인인 단순 기록의 기능을 담당한다. 안정성과 속도에서 비교우위를 보인다. ②체인 기반 탈중앙 담보 구조이다. 자체 메인넷 또는 외부 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담보 및 발행을 자동 운영하는 구조이다. ③멀티체인 구조이다. 하나의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체인의 메인넷 위에서 동시 운영되는 구조이다. 확장성에 장점을 보이지만, 복잡한 보안이 필요하다.

온체인(On-Chain)은 블록체인 안에서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고 저장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거래-계약-상태 변화가 모두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기록되는 것이다. 온체인 방식이 확대되는 이유는 ①조작 불가능한 데이터 신뢰성, ②중앙 없이도 운영 가능한 금융 시스템(DeFi), ③글로벌 누구나 검증 가능한 투명성, ④소유권/자산/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연속성, ⑤국가-기업-개인이 동일한 기준으로 데이터 확인 등이 있다.

온체인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모든 노드가 거래를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리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블록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수수료가 상향될 여지가 존재한다. 모든 노드가 데이터를 영구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일 저장에는 비효율적이다.

개화를 기다리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기본법은 2023년 7월 제정,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시행되었다. 국회가 연내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본래 2025년 10월 법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지연된 상태이다. 입법 이후 유예기간(1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은행 과반 지분 의무화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로 제시되는 사항은 금산분리 원칙 유지, 통화 안정, 금융리스크 확대 방지 등이 있다.

은행권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등록한 기업은 KB금융이다. 그룹내 공동 디지털자산 대응 협의체를 구축, 스테이블코인 전담 분과를 상설,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 테스트 당시 참여 은행 중 관련 인프라를 직접 개발한 유일한 금융사이다. 2025년 10월말에는 스위프트와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국제 송금 실험에 참여하기도 했다.

농협금융은 은행권 공동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오픈 블록체인 · DID협회 회장으로 참여, 은행권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자체 개발도 진행 중이다. 해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부가가치세를 스테이블코인으로 환급받도록 하는 텍스리펀드 디지털화 PoC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가세 수기 환급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해 실시간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농협은행은 아톤, 뮤직카우와 3자 업무협약(2025.8월)을 체결, K-콘텐츠 실물자산 STO와 결제/정산용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해 자산 유동화 확대 및 투명한 거래 인프라를 검증하는 STO-스테이블코인 융합 사업모델 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실사용처 확보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자체 배달앱-펍겨요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신세계, 롯데 등 대형 유통사와 협력해 포인트-스테이블코인 교환 모델을 실험하기도 했다. 기존 은행망 규제를 유지하면서 국경간 자금 이동 구간에서만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샌드위치 모델을 도입했다. 2025년 7월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뱅킹앱에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를 오픈했다. 2025년초 디지털자산 TF를 운영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테스트, 국가간 지급결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 확장에 나서고 있다. 2025년 5월 전 세계 유통량 2위 스테이블 코인인 USDC 발행사인 서클과 MOU를 체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9월 세계 1위 발행사 테더 관계자들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며 준비하고 있다. 2025년 12월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MOU도 체결했다.

우리금융은 지분투자 파트너사인 블록체인 스타트업 비덱스를 중심으로 간접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비덱스는 2025년 9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을 공식 발행하며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 100% 원화 담보 구조로 담보금은 우리은행 계좌에 예치된다. API를 통해 실시간 증거금 상태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비은행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 주도 사업시 혁신성과 속도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네이버-두나무. 두나무는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주식 맞교환을 통해 네이버 손자회사(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가 되었다. 2025년 7월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두나무)와 네이버페이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업을 할 것으로 밝혔다. 2025년 9월, 두나무는 자체 Web3 기반 블록체인 인프라인 기와(GIWA) 체인과 기와 월렛을 공개한바 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리, 결제 연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의 사용자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금융 생태계에 대응한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페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비트는 유통 및 기술 인프라 구축의 협력구조이다.

토스-빗썸. 2025년 6월 토스는 KRWV, TKRW 등 총 24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2025년 8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토스는 빗썸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라는 뉴스도 보도되었다. 결제 시스템 협력을 논의 중이다. 빗썸은 300억원 규모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펀드를 기 조성했다. 토스는 간편결제 및 금융 플랫폼 역할을 활용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빗썸은 디지털 자산 유통 및 기술 인프라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트래블월렛, 코나아이, 위메이드 등의 기업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모색 중이다.

발행 주체가 은행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송금, 결제 등에 집중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금융리스크 측면에서 지갑사업을 외주를 통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시스템 안정성, 결제 안전성에 대한 Risk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레퍼런스 보유 여부와 신속한 대응 여부가 금융권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동사가 인수한 월렛원은 국내 VASP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 중 지갑 사업화를 가장 많이 수행한 1위 기업이다. Arc를 통해 해외사업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헤토이노베이션 (21418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1,709	2,210	2,630	2,885	3,195
매출원가	0	0	0	0	0
매출총이익	1,709	2,210	2,630	2,885	3,195
판매비	1,427	1,836	2,273	2,505	2,706
영업이익	282	375	356	380	489
EBITDA	388	495	496	537	657
영업외손익	72	45	22	32	-24
외환관련손익	4	-3	-4	4	-2
이자손익	10	10	17	37	46
관계기업관련손익	35	1	-19	3	-10
기타	22	36	29	-13	-5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54	420	378	412	465
법인세비용	61	95	56	93	117
계속사업순이익	293	325	322	319	348
중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93	325	322	319	348
지배지분순이익	203	211	295	228	279
포괄순이익	299	355	341	305	374
지배지분포괄이익	209	245	309	216	307

주: 영업이익의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영업활동 현금흐름	469	834	260	614	1,060
당기순이익	293	325	322	319	348
감가상각비	49	57	74	92	103
외환손익	-3	1	2	0	1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35	-1	19	-3	10
자산부채의 증감	99	291	-199	84	339
기타현금흐름	66	161	42	120	259
투자활동 현금흐름	5	-64	-330	-270	82
투자자산	-52	-42	-288	-242	145
유형자산 증가 (CAPEX)	-55	-15	-33	-9	-44
유형자산 감소	0	0	7	1	0
기타현금흐름	111	-7	-16	-19	-19
재무활동 현금흐름	-279	-90	-113	-266	-52
단기차입금	0	-20	-11	-2	95
사채 및 장기차입금	0	0	-2	-1	0
자본	0	11	0	0	0
현금배당	-51	-59	-73	-75	-58
기타현금흐름	-228	-21	-27	-188	-89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65	20	5	0	0
현금의 증감	260	700	-177	78	1,091
기초 현금	946	1,206	1,906	1,729	1,807
기말 현금	1,206	1,906	1,729	1,807	2,898
NOPLAT	282	375	356	380	489
FCF	432	771	264	612	951

자료: 유안타증권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2. PER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ROA의경우, 자본,자산 항목은 연초,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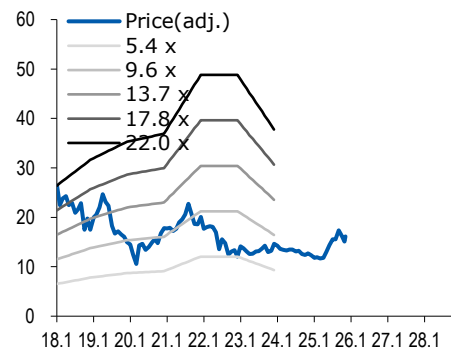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유동자산	2,322	3,199	3,654	4,242	5,386
현금및현금성자산	1,206	1,906	1,729	1,807	2,89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58	588	1,188	1,501	1,585
재고자산	118	77	99	107	143
비유동자산	1,296	1,341	1,614	1,564	1,536
유형자산	85	73	80	54	69
관계기업 등 자본관련 자산	159	147	154	131	86
기타투자자산	196	274	323	363	343
자산총계	3,618	4,541	5,268	5,806	6,922
유동부채	1,042	1,624	2,174	2,661	3,42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947	1,521	1,984	2,413	2,976
단기차입금	0	6	7	5	100
유동성장기부채	20	0	0	0	0
비유동부채	161	177	268	153	199
장기차입금	0	0	1	0	0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1,203	1,801	2,442	2,815	3,624
지배지분	1,293	1,362	1,400	1,744	2,072
자본금	67	68	68	68	68
자본잉여금	595	452	259	448	509
이익잉여금	783	954	1,205	1,437	1,703
비지배지분	1,122	1,378	1,426	1,247	1,226
자본총계	2,415	2,739	2,826	2,991	3,297
순차입금	-1,789	-2,489	-2,230	-2,592	-3,480
총차입금	40	9	114	19	155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EPS	1,608	1,680	2,222	1,720	2,105
BPS	10,633	10,397	10,882	14,092	16,919
EBITDAPS	292	376	374	405	495
SPS	1,288	1,677	1,984	2,176	2,411
DPS	340	390	420	360	490
PER	9.0	11.6	7.0	7.8	6.3
PBR	1.4	1.9	1.4	0.9	0.8
EV/EBITDA	3.0	2.7	2.6	0.8	-0.8
PSR	11.3	11.6	7.9	6.1	5.5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증가율 (%)	38.1	29.3	19.0	9.7	10.7
영업이익 증가율 (%)	4.5	32.9	-4.9	6.7	28.5
지배순이익 증가율 (%)	13.5	3.8	39.6	-22.6	22.4
매출총이익률 (%)	100.0	100.0	100.0	100.0	100.0
영업이익률 (%)	16.5	17.0	13.6	13.2	15.3
지배순이익률 (%)	11.9	9.5	11.2	7.9	8.7
EBITDA 마진 (%)	22.7	22.4	18.8	18.6	20.6
ROIC	72.0	195.6	261.3	195.3	-267.1
ROA	6.1	5.2	6.0	4.1	4.4
ROE	15.9	15.9	21.3	14.5	14.6
부채비율 (%)	49.8	65.8	86.4	94.1	109.9
순차입금/자기자본 (%)	-74.1	-90.8	-78.9	-86.7	-105.6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112.0	216.3	32.8	27.6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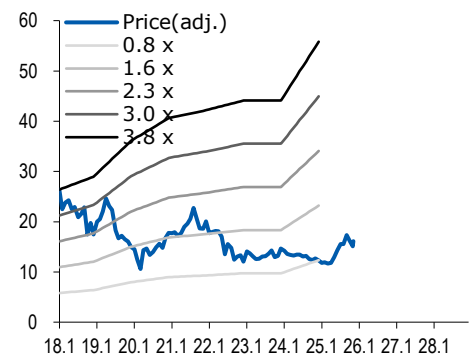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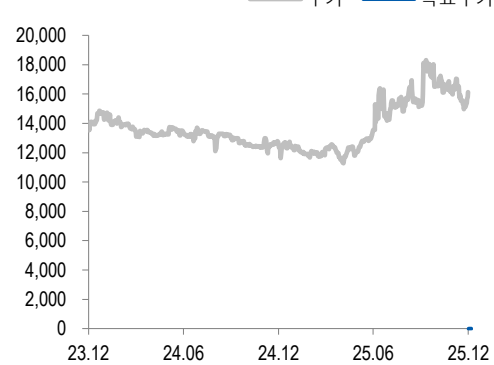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헥토이노베이션 (21418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원)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최고(최저) 대비 주가 대비	
2025-12-08	Not Rated	-	1년		
2025-05-09	1년 경과 이후		1년		
2024-05-09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2
Hold(중립)	5.8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12-05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